

발제문

대외 학술교류 심화를 통한 싱크탱크 국제 영향력 제고

다즈강

흑룡강성 사회과학원 동북아연구소장

1. 헤이룽장성(黑龍江省)사회과학원 소개

헤이룽장성사회과학원의 전신은 1960년 설립된 중국과학원 헤이룽장분원 철학사회과학부와 1964년 설립된 헤이룽장성 철학사회과학연구소이다. 1979년 성(省)위원회 승인을 거쳐 헤이룽장성사회과학원이 설립됐다. 헤이룽장성사회과학원은 전국 일류의 지방 사회과학원과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신형 싱크탱크 건립을 목표로 과학연구, 인재 양성, 제도관리, 개방, 민주 노선을 견지하며 자생동력을 이끌어내고 사회적 역량을 결집하며 지역발전에 대한 기여도를 높이고 국내외 영향력과 혁신 추진력을 높임으로써 과학연구를 중심으로 한 각종 프로젝트에서 뚜렷한 성과를 거뒀다.

헤이룽장성사회과학원은 산하에 연구소(센터) 13곳, 기관처실 9곳, 연구지원 부문 2곳, 간행물 발간 기관 1곳, 교육 기관 2곳을 두고 있다. 헤이룽장성에 분원 12개, 지역 상황 조사연구 기지 6곳이 있으며, 중국사회과학원 국가 상황 조사연구 헤이룽장 기지 사무실이 헤이룽장성사회과학원에 설치돼 있다. 헤이룽장성사회과학원은 18개 성급(省級) 리더 인재 부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 중 정치학 이론은 헤이룽장성 ‘535 공정’의 제2군이다. 또한 고급 연구원 33명, 석사 연구생 지도교수 40명을 보유한 외에도 국가

에 크게 기여한 청장년 전문가, 국무원 특별 수당을 받는 전문가, 문화건설종신영예상 수상자, 헤이룽장성우수청장년 전문가, 성정부 특별 수당을 받는 전문가, 지역문화 명사 등 80여 명을 보유하고 있다.

헤이룽장성사회과학원은 ‘학습과 탐색’, ‘헤이룽장 사회과학’, ‘시베리아 연구’, ‘중국-동북아 국가 연감’ 등 공개 발행되는 정기간행물 4종 및 연감 및 보고서 ‘요보(要報)’를 발간하고 있다. 헤이룽장성사회과학원은 석사 학위 수여 권한을 보유한 5개 지방 사회과학원 중 하나로, 응용경제학, 정치학, 사회학, 세계사 4개 1급 학과의 석사 학위 수여 권한과 정치학, 세계사 2개 성급 중점 학과를 보유하고 있으며, 평생교육원(직업대학)은 사회과학원 유일의 성인 대상 고등교육기관이다.

설립 이래 각종 연구 성과 1.5만여 건을 발표했으며, 이 중에는 전문저작, 편저, 번역서 680여 부가 포함된다. 또한 국가급, 성급 주요 과제 380여 건을 담당했는데, 이 중에는 국가사회과학재단 프로젝트 80여 건, 동북공정 약 20건, 성(省) 사회과학 연구 계획 프로젝트 240여 건, 성 과학기술 연구 프로젝트 40여 건이 포함되며 500여 건의 성과가 성부급(省部級), 성장 및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았다.

현임 헤이룽장사회과학원 당위(黨委) 서기(書記)는 중국공산당헤이룽장성위원회 부비서장(副秘書長) 우펑청(武鳳呈)이고 원장은 주위(朱宇) 연구원이다.

2. 대외 학술교류 상황 소개

헤이룽장성사회과학원의 국제 학술교류 활동은 1980년대 전 소련과의 국경무역 협력에서 시작되었다. 헤이룽장성사회과학원은 싱크탱크로서 지리적 이점과 연구 경험을 이용하여 전 소련과 동유럽 국가와의 경제무역 협력을 지원했으며, 전 소련의 극동과 시베리아 지역을 중심으로 전 소련 및 유럽 지역을 아우르는 학술교류 네트워크를 형성하였다. 이를 위해 전 소련과학원 극동연구소, 모스크바대학, 전 소련과학원 극동분원 역사/고고(考古)연구소, 극동분원 아시아태평양지리연구소, 아무르주립대학 등과 중앙 및 지방을 중심으로 하는 교류 파트너 관계를 체결했다. 이와 더불어 헤이룽장사회과학

원은 한국, 유럽, 미국, 일본, 북한, 몽골과의 다양한 교류를 적극적으로 개척하여 유라시아에 무게를 두는 동시에 여타 지역과의 학술교류를 아울러 진행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최근 각국이 싱크탱크 협력을 중시하고 ‘중국 특색의 새로운 싱크탱크 건설에 관한 의견’ 등 건설 의견이 추진되면서 헤이룽장성은 새로운 싱크탱크 건설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 이는 헤이룽장성이 세계적 안목과 지역의 시야를 갖춰 관심이 집중되는 신형 싱크탱크를 건설하는 데 중요한 기회를 가져다 주었다. 권위 있고 선도하는 성급 싱크탱크인 헤이룽장성사회과학원은 지방정부 정책 결정을 지원한다는 기본 포지셔닝에 따라 국제적 영향력을 제고하고 국제교류를 통해 국내외 영향력을 갖춘 새로운 서비스형 싱크탱크를 구축하고 있다. 본원이 국제교류와 협력을 진행하는 연구기관에는 러시아연구소, 동북아연구소, 유태인연구센터, 동북아/국제문제연구센터가 있으며 기타 연구소와도 교류하지만 전체적으로는 국제기관이 주를 이룬다. 수년간의 국제교류 상황으로 볼 때 다음의 3가지 측면에서 특징을 보인다.

(1) 양자/다자 간 학술 관계 광범위 체결

최근 성위원회 선전부와 외사판공실의 대대적인 지원 아래 ‘해외 진출’과 ‘투자 유치’ 심화를 통해 한국, 러시아, 일본, 북한, 몽골, 미국, 영국, 싱가포르 등 국가와 긴밀하게 학술 교류를 실시한 결과, 체결된 학술 계약과 협력 MOU가 20여 건, 창출된 인맥이 500명 이상에 이른다. 이 중 한국과 7건(대외경제정책연구원, 산업은행경제연구소, 한중문화우호협회, 충남연구원, 충북연구원, 동북아지역지방정부연합회, 동북아역사재단), 러시아 5건, 일본 5건, 몽골 2건, 북한 1건(논의 중)을 체결했다. 성 나아가가 전국의 동북아연구에서 권위적 위치를 구축하고 학술과 미디어 발언을 확대하는 데 핵심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또한 100여 명 학자 해외출국 50여 차례, 상대국 학자 등 500여 명의 방문 영접이 100여 차례에 달한다. 이 중 한국, 러시아, 일본으로의 1개월 이상 연수 프로젝트가 다수를 차지한다. 이 밖에도 헤이룽장성사회과학원은 2가지 측면에서 학술교류 기초를 다지고 있다. 첫째, 국제문제 연구 학자들의 일본국제교류재단, 성외사판공실 국제협력교류원, 민간단체 실무 연수 등 프로젝트에 적극 신청하도록 장려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충청북도, 한중문화우호협회, 러시아과학원 극동분원, 일본홋카이도대학에서 객원 연구와 실무 연구에 참여한 사람이 다수에 달한다. 둘째, 한국 정초시, 정지현, 미국 키신저(Kissinger), 바셰프스키(Barshesky), 일본 이케다 다이사쿠(池田大作), 야마베 유키고(山邊悠喜子), 타바타 신이치로(田畑伸一郎), 아라이 히로후미(新井洋史), 몽골 바야사후, 투무얼, 이스라엘 올메르트(Olmert) 등 유명인사를 초청해 명예연구원으로 임명함으로써 국내외 명예 특별 연구원이 31명에 달하고 유명인 효과를 통해 국제교류를 확대하고 국제교류 수준을 향상하며 영향력과 감화력을 제고하고 있다.

(2) 과학연구와 싱크탱크 국제교류의 장 구축 강화

헤이룽장사회과학원은 지방 싱크탱크로서 글로벌화 수준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해결책으로, 조건을 갖추고 경쟁력 있는 연구소와 센터가 국제 교류의 장을 구축하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다. 국제싱크탱크포럼과 관련 심포지엄 정기 개최, 국내외 싱크탱크 협력 연구 등 방식을 통해 국내외 싱크탱크, 국가와 지방 싱크탱크의 연계, 관점 논의, 교류 소통, 신뢰 증진에 토대를 제공하는 한편, 정부 정책 결정에 이론적 근거를 제공하고 현실적으로 인도하며 정부 정책 결정의 개방, 혁신, 포용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지난 20년간 헤이룽장사회과학원은 국제포럼을 이용하여 국제 교류의 장을 구축하는 데에서 성과를 얻고 있다. 10회 이상의 중국-러시아 지역협력포럼 개최에서 발전한 동북아지역발전포럼은 이미 6회째를 맞이하였고, 2014년 성정부 지시에 따라 중-러 싱크탱크협력포럼으로 개명되었다. 본원은 상기 포럼을 주관하고자 국내외 정상급 전문가, 학자, 정부 고위층, 다국적기업인을 결집시키고, 학술 교류를 통해 헤이룽장성 개혁 개방 성과를 홍보하고 영향력을 확대하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 전 소련 장관회의 의장, 러시아연방부총리, 중러우호협회 의장, 20여 명의 러시아과학원 원사(院士), 6명의 중국사회과학원 학부위원, 주(駐)선양(沈陽) 한미일 총영사, 한/미/일/북한/몽골 유명 학자, 주중(駐中) 경제계/기업계 인사 약 500명이 잇달아 회의에 참석했다. 현재 헤이룽장사회과학원은 중러박람회 기간 ‘중-러 싱크탱크협력포럼’과 중국공산당 헤이룽장성 위원회 선전부, 광명(光明)일보사와 공동 주관하는 ‘동북진흥과 일대일로(一帶一路)’ 협

력포럼의 2가지 고정 포럼을 보유하고 있다. 2017년 6월에는 전국일본경제학회연회, 전국신흥경제체제헤이룽장분과포럼을 개최했다. 이 밖에도 헤이룽장사회과학원은 사회과학문헌출판사와 공동 수립한 동북아데이터베이스 플랫폼에 기반해 중국동북아국가연감, 중-러 양국언어 청서, 동북아 청서를 출판하고 있으며 한/러/일/몽골 등 국가의 학자를 초빙해 연구 보고서를 작성하고 국경지역을 공동 시찰함으로써 싱크탱크 협력과 교류의 상시화, 고급화, 플랫폼화를 실현하였다.

(3) 동북아지역 최초 다자 간 싱크탱크 연맹 결성

2016년 6월 헤이룽장사회과학원은 ‘동북진흥과 일대일로 건설 글로벌 포럼’ 개최라는 유리한 기회를 이용해 동북아 싱크탱크 연맹 결성을 제안, 동북아 한/중/일/러/몽골 등 51개 싱크탱크로부터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고, 새로운 플랫폼 개척, 싱크탱크 교류 촉진, 실무협력 추진에서 다자 간 싱크탱크 교류와 협력의 장을 마련함으로써 동북아지역의 싱크탱크 협력이 전무한 상황을 타개하였다. 여기에는 중국사회과학원 3대 국제문제연구소, 지방 사회과학원 9곳, 정부연구센터, 유명 학부의 싱크탱크 등 중국 싱크탱크 39곳과 한국 4곳, 러시아 3곳, 일본 3곳, 몽골 2곳이 포함되는데, 이러한 연맹은 동북아 각국 정부에 대한 정책 제언과 지방 차원의 우호 협력에 이론적, 실천적인 다자 간 플랫폼을 마련해주었다. 설립 1년간 싱크탱크 연맹은 헤이룽장사회과학원에 설치된 동북아연구소의 비서처(秘書處)를 통해 양자/다자 간 교류 활동을 진행하였다. 일례로 상대국이 개최하는 국제학술포럼, 양자 혹은 다자 간 조사연구 및 공동연구에 참여했다. 향후 전자교류 간행물 출판, SNS, 포럼 윤번 개최 등에 대해 심층적인 논의를 진행할 것이다.

3. 헤이룽장성 국제협력 지원에 대한 헤이룽장사회과학원의 역할

헤이룽장성위원회 성정부를 지원하는 브레인트러스트이자 싱크탱크 건설의 핵심 싱크탱크인 헤이룽장성사회과학원은 헤이룽장성 대외개방을 과제로 추진하고 지방경제사회발전 지원을 싱크탱크의 기본 포지셔닝으로 확정하며 응용/기초연구 우위를 이용

하여 정책 결정을 지원하고 참여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눈에 띄는 성과도 거두었다. 구체적인 성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헤이룽장성의 개방전략 마련을 직접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전 소련, 러시아, 한국, 일본에 대한 헤이룽장성 개방의 성급 및 국가급 전략으로 승격된 개방 성과는 헤이룽장사회과학원 연구원들이 직접적으로 참여한 결과물이다. 예컨대 2005년 헤이룽장성에서 발표한 러시아와의 과학기술 경제무역 협력 전략의 성급 법규로의 승격과 2007년 헤이룽장성에서 발표한 한국과의 과학기술 경제무역 협력 성급 전략의 법규 승격은 헤이룽장성사회과학원 연구원들이 대책을 제안해 만들어진 개방 전략이다. 발표 이후 그 해 러시아, 한국과의 경제무역 협력은 무역과 투자기업 측면에서 모두 증가세를 보였다. 둘째, 직간접적인 헤이룽장성 지원이 국가 전략 연구에 포함되었다. 일례로 2012년 이후의 ‘5대 계획’, 2014년의 ‘헤이룽장과 내이멍구(內蒙古) 동북부 지역 국경 개발 개방 계획’, ‘룽장(龍江) 실크로드 경제벨트 건설 계획’ 등이 있다. 셋째, 구체적인 프로젝트 토론과 입안 검증에 직접 참여하고 국경 항구 등 지방정부, 민간기업 투자 입안 등을 지원하였다. 예컨대 2014년 2월 가동한 통장(同江)대교 프로젝트, 2016년 12월 가동한 헤이허(黑河)대교 프로젝트, 헤이룽장성과 하얼빈(哈爾濱)시 우호도시인 일본 니가타현(新潟縣)과 니가타시가 하얼빈에 수출하는 생화사업, 하얼빈시 온천사업 일본 협력 연계, 한중문화우호협회 헤이룽장성 문화협력 사업 등이 있다. 넷째, 러시아 및 동북아 협력 심화를 위한 헤이룽장성의 이론적 지원, 학술적 각도에서 제공한 기초 이론과 응용연구의 학술 저작 등 성과, 동북아 연감 등 참고서적은 하얼빈무역상담회에서 외교사절 및 기업인들에게 증정됐다. 다섯째, 정부 관련 투자유치, 상무부처 투자유치, 사업 소개, 기업/정부 해외진출에 이론적/인적 뒷받침 제공, 성/시정부의 외국과의 협력에 20여 차례의 기회를 제공해주었다. 여섯째, 동북아 전략 연구원(성급 신형 양성 싱크탱크 랭킹 1위), 헤이룽장성 동북아연구회, 헤이룽장/러시아/동유럽/중앙아시아연구회, 세계경제, 러시아역사, 아태경제주요학과, 중-일 싱크탱크네트워크헤이룽장기지, 헤이룽장성동북아지역경제연구기지 등 민간 단체와 학과 자원을 활용하여 대외 개방을 지원하고 외국 학자의 강좌 및 교류를 조직했다. 특히 동북아 연구회는 2016년 전국 우수 학회와 성급 특색 학회로 선정됐다.

通过深化对外学术交流提升智库国际影响力

笄志刚

黑龙江省社会科学东北亚研究所所长’ 研究员

一、黑龙江省社科院简介

黑龙江省社会科学院的前身是 1960 年建立的中国科学院黑龙江分院哲学社会科学学部和 1964 年成立的黑龙江省哲学社会科学研究。1979 年，经省委批准，组建黑龙江省社会科学院。黑龙江省社会科学院以创建全国一流地方社会科学院和中国特色社会主义新型智库为目标，坚持科研强院、人才兴院、制度管院、开门办院、民主建院，激发内生动力，聚焦社会合力，提高服务全省发展贡献力，提升国内国际影响力和支撑创新保障力，以科研为中心的工作取得了显著成效。

黑龙江省社会科学院设有 13 个研究所（中心）、9 个机关处室、2 个科辅部门、1 个办刊单位、2 个办学单位。在全省设有 12 个市地分院和 6 个省情调研基地，中国社会科学院国情调研黑龙江基地办公室设在黑龙江省社会科学院。黑龙江省社会科学院拥有 18 个省级领军人才梯队，其中政治学理论为全省“535 工程”第二层次梯队。拥有正高级研究员 33 人，硕士研究生导师 40 人，其他

国家级有突出贡献中青年专家、享受国务院特殊津贴专家、领奖文化建设终身荣誉奖、黑龙江省优秀中青年专家、享受省政府特殊津贴专家、省文化名家等 80 余人。

黑龙江省社会科学院办有《学习与探索》、《黑龙江社会科学》、《西伯利亚研究》、《中国—东北亚国家年鉴》4 种公开发行人刊、年鉴和送阅件《要报》。黑龙江省社会科学院是全国具有硕士学位授予权的 5 家地方社会科学院之一，拥有应用经济学、政治学、社会学、世界史 4 个一级学科硕士学位授予点和政治学、世界史 2 个省级重点学科，继续教育学院（职工大学）是社会科学院系统唯一的一所成人高校。

建院以来，全院共发表各类科研成果 1.5 万余项，其中专著、编著、译著 680 余部；承担国家级和省级重要课题 380 余项，其中国家社科基金项目 80 余项、东北边疆工程项目近 20 项、省社科研究规划项目 240 余项、省科技攻关项目 40 余项；共有 500 余项成果获省部级以上奖励。

中共黑龙江省委副秘书长武凤呈为现任黑龙江社科院党委书记，朱宇研究员为院长。

二、对外学术交流情况介绍

黑龙江省社科院的国际学术交流活动起步较早，从上个世纪 80 年代对前苏联的边境贸易合作开始，黑龙江省社科院作为智库利用地缘优势和研究积淀，积极为本省深化对前苏联和东欧国家的经贸合作服务，形成了对前苏联远东和西伯利亚地区为重点，辐射前苏联欧洲地区的学术交流网络，与前苏联科学院远东研究所、莫斯科大学、前苏联科学院远东分院历史和考古研究所、远东分院亚洲太平洋地理研究所、阿穆尔州立大学等中央和地方为重点的交流伙伴关系。与此同时，黑龙江社科院积极开拓与欧美日韩朝蒙的各种交流，形成了侧重欧亚，兼顾其他的学术交流方向。

近年，随着国家重视智库合作和推出相关《关于加强中国特色新型智库建设的意见》等建设意见，本省打造新型智库建设步伐加快，给黑龙江省建设具有世界眼光、区域视野和省情关注的新型智库带来重大机遇，作为省级权威和领军智库，黑龙江省社科院遵循实现服务地方党政决策的根本定位，结合提升国际影响力，强化以国际化交流打造具有国内外影响力的新型服务型智库。我

院涉及国际交流与合作的研究机构主要有俄罗斯研究所、东北亚研究所、犹太人研究中心、东北亚和国际问题研究中心，其他研究所也有交流，但总的以国际片为主。从他们多年的国际交流来看，主要体现在以下三个方面。

（一）广泛建立双边和多边的学术签约关系

近年，在省委宣传部和省外办的大力支持下，通过深化“走出去”和“请进来”，密切与俄日韩朝蒙美英新等国的学术往来，先后建立学术签约和备忘录合作关系 20 余个，开拓各种人脉超过 500 人。其中，对俄 5 个，对日 5 个，对韩 7 个（对外经济政策研究院、产业银行经济研究所、韩中文化友好协会、忠南研究院、忠北研究院、东北亚地区地方政府联合会、东北亚历史财团）、对蒙 2 个、对朝 1 个（正在商谈），对构筑在全省乃至全国的对东北亚研究的权威地位、夯实和扩大学术及媒体话语权起到了关键支撑作用。组织学者出访 50 余批次，100 多人次，接待对方学者等来访 100 余批次，500 多人次。其中对俄韩日一个月以上的进修项目多个。另外，黑龙江社科院还从两个方面推动夯实学术交流基础。一是鼓励国际问题研究学者积极申请日本国际交流基金、省外办国际合作交流员、民间团体工作进修等项目，先后有多人赴俄罗斯科学院远东分院、日本北海道大学、韩国忠清北道、韩中文化友好协会客座研究、工作深造。二是聘请了美国基辛格、巴尔舍夫斯基，日本池田大作、山边悠喜子、田畑伸一郎、新井洋史，韩国郑超时、郑知贤，蒙古国巴亚萨呼、图木尔，以色列奥尔默特等名人担任名誉研究员，使现有国内外名誉和特别研究员达到 31 人，通过名人效应把国际交流做大，夯实国际交往水平，提升影响力和感召力。

（二）加强科研和智库国际交流平台的建设

作为地方智库提升国际化水平的重要路径，黑龙江社科院积极支持有条件和优势的研究所和中心构筑国际交流平台，通过定期召开国际智库论坛和相关研讨会，中外智库合作研究等方式，为中外智库、国家和地方智库对接，切磋观点、沟通交流、增信释疑提供基础平台，实现为政府决策提供理论支撑、实践引导，促进政府决策的更加开放、创新和包容。20 年来，黑龙江社科院利用国际论坛构建国际交流平台不断取得突破。由举办了十余届的中俄区域合作论坛演变而来的东北亚区域发展国际论坛已成功召开六届，2014 年根据省政府指

示改名为中俄智库合作论坛。我院利用承办上述论坛的平台聚集了一大批国内外顶级专家学者、政府高官和跨国企业家，对以学术交流宣传我省改革开放成就和扩大影响起到了很大的作用。前苏联部长会议主席雷日科夫、俄联邦副总理尼古拉耶夫、俄中友协主席季塔连科、20余名俄罗斯科学院院士、6名中国社科院学部委员、美日韩驻沈阳总领事、美日韩蒙朝知名学者、驻华商会和企业界人士近500人先后莅临会议。现在黑龙江社科院拥有作为中俄博览会期间的“中俄智库合作论坛”和与中共黑龙江省委宣传部、光明日报社合办的“东北振兴与‘一带一路’”合作论坛两个固定机制，2017年6月还承办了全国日本经济学会年会、全国新兴经济体黑龙江分会论坛。此外，黑龙江省社科院还依托与社科文献出版社共建的东北亚数据库平台，利用出版中国东北亚国家年鉴、中俄双语蓝皮书和东北亚蓝皮书的出版机制，聘请俄日韩蒙等国学者参与撰写研究报告、共同进行边境地区考察等，实现了智库合作与交流的常态化、高端化和平台化。

（三）创造性地倡议创办了东北亚地区首个多边智库联盟

2016年6月，利用召开东北振兴与一带一路建设国际论坛的有利契机，黑龙江社科院倡议成立了东北亚智库联盟，并得到东北亚中俄日韩蒙51家智库积极响应，在开辟聚智新平台，促进智库交流，推动务实合作上打造了一个多边智库交流与合作平台，填补了东北亚地区在该领域的合作空白。其中中国智库39家，涵盖国内包括中国社科院三大国际问题研究所、地方9家社科院、政府研究中心、知名学府的著名智库等多家研究型智库。俄罗斯3家、韩国4家、日本3家、蒙古国2家，为向东北亚各国政府建言献策，推动地方层面友好合作提供了具有学理和实践支撑的多边平台。成立一年来，智库联盟通过设在黑龙江社科院东北亚所的秘书处开展了一些双边和多边交流活动。例如共同参与对方举办的国际学术论坛、双边或多边调研及共同研究，今后还将就出版电子交流刊物、微信公众号、轮流举办论坛等进行进一步的磋商。

三、黑龙江社科院在服务黑龙江省国际合作中的作用

作为服务黑龙江省委省政府的智囊团和思想库、智库建设中的核心智库和领军智库，黑龙江省社科院始终把推动本省对外开放作为己任，将服务地方经济社会发展作为智库的根本定位，在利用应用和基础研究优势服务及参与决策上做出了诸多努力，也取得了较为令人瞩目的成就。主要体现在：一是直接服

务省级开放战略出台。黑龙江省对前苏联和对俄、对日韩开放的很多省级和上升为国家级战略的开放成果都有黑龙江省社科院科研人员的积极参与。例如 2005 年黑龙江省出台的对俄科技经贸合作战略升级省级法规、2007 年黑龙江省出台的对韩科技经贸合作省级战略升级法规，都是在黑龙江省社科院科研人员对策建议基础上形成的开放战略。出台伊始就使当年的对俄和对韩经贸合作在贸易和投资商出现双攀升。二是直接或间接服务黑龙江省被纳入国家战略视野的研究。例如 2012 年以来的《五大规划》、2014 年的《黑龙江与内蒙古东北部地区沿边开发开放规划》、龙江丝路带建设规划等。三是直接参与具体项目的讨论和立项论证，服务沿边口岸等地方政府、民营企业投资立项等。例如 2014 年 2 月启动的同江大桥项目、2016 年 12 月启动的黑河大桥项目、黑龙江省和哈尔滨市友好城市日本新泻县和新泻市向哈尔滨出口鲜花项目、哈尔滨市温泉项目对接日本合作等、韩中文化友好协会对黑龙江省的文化合作项目等。四是为黑龙江省深化对俄及东北亚合作提出理论支撑，从学理和学术角度提供基础理论和应用研究的学术著作等成果，东北亚年鉴等工具书作为哈洽会礼物赠送驻外使节及商务人士。五是政府相关招商、商务部门招商引资、项目推介、企业和政府走出去提供智力和人脉支撑，先后为省市政府委办局提供涉外合作机会 20 余次。六是利用东北亚战略研究院（省级新型培育智库排名第一）、黑龙江省东北亚研究会、黑龙江俄罗斯东欧中亚研究会、世界经济、俄罗斯历史、亚太经济重点学科、中日思想库网络黑龙江基地、黑龙江省东北亚区域经济研究基地等民间社团和学科资源服务对外开放，组织了多场外国学者的讲座和交流，东北亚研究会 2016 年被选为全国优秀学会和省级特色学会。